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트럼프노믹스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 차

■ 트럼프노믹스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미·중 간 교역 및 보호무역 현황	2
3.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6
4. 시사점	7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동북아연구실 : 한 재 진 연 구 위 원 (2072-6225, hzz72@hri.co.kr)

 천 용 찬 선 임 연 구 원 (2072-6274, junius73@hri.co.kr)

 박 용 정 연 구 원 (2072-6204, yongjung@hri.co.kr)

Executive Summary

□ 트럼프노믹스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개요

1월 20일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무역을 강조하면서 반덤핑 등 무역 구제조치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향후 중국의 對美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심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對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조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중 간 교역 및 보호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관세 부과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의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미·중 간 교역 및 보호무역 현황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교역현황과 보호무역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중요한 교역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1위 수입대상국이며, 2015년 현재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21.5%로 증가 추세이다. 한편, 중국의 對美 수출증가율은 2010년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2000년 298억 달러에서 2015년 2,660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 2015년 중국의 對美 총수출의 증가율은 3.4%에 그친 반면, 수출물량 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25.6%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4년 수출액 및 수출물량 증가율 격차는 3.0%p 수준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22.2%p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② 미국의 對中 수입은 주로 최종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재 교역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미국의 최종수요에 대해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은 2000년 178억 달러에서 2011년 979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對中 수입품목 중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71.6%로 대부분이다. 한편, 중간재의 비중은 2005~2015년 사이 24.6%에서 28.0%로 소폭 증가하였다.

③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는 최근 다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중국산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 대상이다. 2005~2016년 사이 미국의 규제중인 조치의 누적건수를 볼 때, 중국에 대해서는 총 97건으로 집계되었다. 시기별로는 2008~201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가 최근 2년간 다시 증가추세이다. 품목별로는 중국산 철강제품 36건, 화학제품 18건, 고무플라스틱 7건, 기타 품목 36건의 규제조치가 나타났다.

■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관세율 인상은 중국의 수출 단가를 높이는 효과와 같고,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관세율 변화 따라 추가적인 단가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여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중국의 對美 수출에 얼마나 손실을 가져다줄지 시나리오 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의 對美 수출 단가가 1%p 인상되었을 때 수출물량은 0.93% 감소한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對美 수출손실액을 추정해보면, 미국의 對中 평균 수입 관세율이 현행 3% 수준에서 15%, 30%로 상승하면 중국의 對美 수출손실액은 각각 427억 달러, 956억 달러로 나타난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45%의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에는 1,490억 달러의 對美 수출손실액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중국의 대미 총수출의 38.3%에 해당한다.

■ 시사점

미국이 對中 수입품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45%의 고관세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더라도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에 따른 중국 GDP 하락 등 중국경제의 강한 하방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도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對美 수출 우회경로인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 남미 등 국가로 수출을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국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중 단기간 내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정책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넷째**,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RCEP,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도 편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1. 개요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의 對中 보호 무역주의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미국 트럼프 정권의 對中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무역을 강조하면서 반덤핑 등 강력한 무역구제조치 실행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중국 등 국가를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WTO에 제소, 재량적 무역구제수단 등을 통해 무역 보복을 시사
 -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對美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중 간 교역 및 보호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관세 부과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의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통상정책 공약 >

구 분	對한국 파급영향
한국,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중국의 환율이 지속 상승할 경우, 미국측의 관세보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수출 경쟁력 저하 가능성도 상존
중국의 불법보조금 등 불공정 행위를 WTO에 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세이프가드, 일방적 무역보복, 안보상 수입규제 등 무역구제수단 사용 - 중국 제품 대한 조치 실행 시, 동일한 한국 제품도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함
對중국 45%, 對멕시코 35%의 덤핑관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對美 직접 수출, 우회수출 경로 부정적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 미·중 간 교역 및 보호무역 현황

① 미·중 양국 간 무역

○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중요한 교역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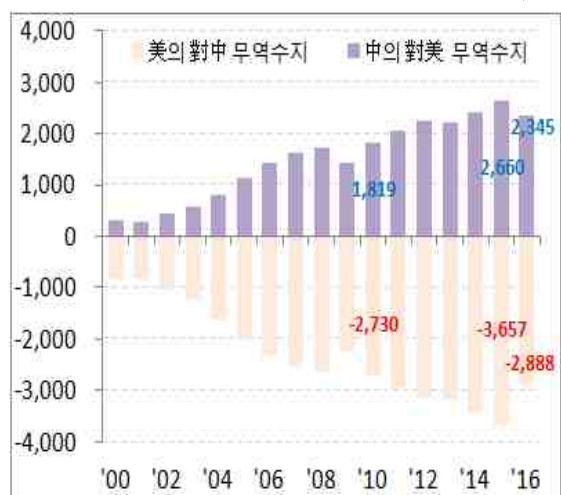
- 미·중 양국은 상호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역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음
 - 중국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1위 수입대상국이며, 2015년 현재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21.5%로 증가 추세
 - 또한, 미국은 2000년 이후로 중국의 1위 수출대상국이며, 2015년 현재 중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비중은 18.0%로 나타남
- 한편, 중국은 對美 수출에서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오는 등 미·중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
 - 중국의 對美 수출증가율은 2010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2000년 298억 달러 흑자에서 2015년 2,660억 달러로 흑자가 지속
 - 반면,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는 동기간 838억 달러 적자에서 3,6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장기간 적자가 지속

< 미중 주요 교역 파트너 변화 추이 >
(억 달러)

연도	미국의 對中 수입	중국의 對美 수출
2000년	1,001 4위 (8.2%)	521 1위 (20.9%)
2005년	2,435 2위 (14.6%)	1,629 1위 (21.4%)
2010년	3,650 1위 (19.1%)	2,831 1위 (17.9%)
2015년	4,819 1위 (21.5%)	4,100 1위 (18.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는 국가별 총수출 혹은 총수입대 비 비중임.

< 미·중 간 무역수지 추이 >
(억 달러)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6년은 11월까지 누적기준임.

○ 2015년 중국의 對美 수출물량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하향추세를 보이면서 수출증가율과 물량증가율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 2015년부터 중국의 對美 수출액 및 수출물량 증가율 차이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의 對美 총수출의 증가율은 3.4%에 그친 반면, 수출물량 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25.6%를 기록
-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물량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의 격차가 22.2%p까지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對美 수출물량은 수출단가 하락에 힘입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15년 중국의 對美 수출단가는 전년보다 1,300달러/kg 하락한 6,076달러/kg로 나타남
- 이에 따라, 2015년 중국의 對美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378만 톤 증가한 6,761만 톤을 기록

< 중국의 對美 수출액 및 수출물량 증가율 >



자료 :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 중국의 對美 수출물량 및 수출단가 >



자료 : UN Comtrade.

주 : 수출단가는 수출물량 1KG당 수출액을 의미함

② 미·중 간 주요 품목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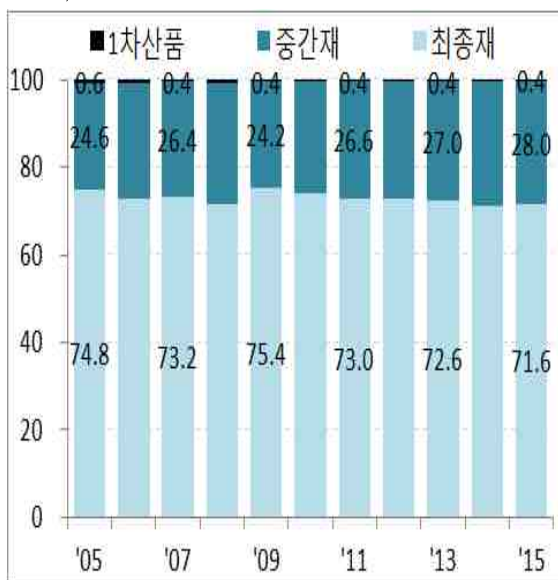
○ 미국의 對中 수입은 주로 최종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재 교역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미국의 최종수요에 대해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은 2010년부터 크게 증가
 - 미국의 최종수요에 대해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은 2000년 178억 달러에서 2011년 979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
 - 특히, 2010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이 미국의 최종수요에 대해 창출한 부가가치 중 중국의 비중도 2011년 기준 13.4%에 달함
- 미국의 對中 수입품목은 최종재가 대부분이고, 2010년부터는 중간재의 비중도 소폭 증가
 - 미국의 對中 수입품목 중에서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71.6%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을 차지
 - 한편, 중간재의 비중도 2005~2015년 사이 24.6%에서 28.0%로 소폭 증가

< 미국 최종수요 중 중국의 부가가치 > (억 달러) (비중, %)



< 미국의 對中 생산공정별 수입비중 > (비중, %)



자료 : OECD-Tiva(2015)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비중은 세계 각국이 미국의 최종수요에 대해 창출한 부가가치 중 중국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 UN Comtrade 자료로 HRI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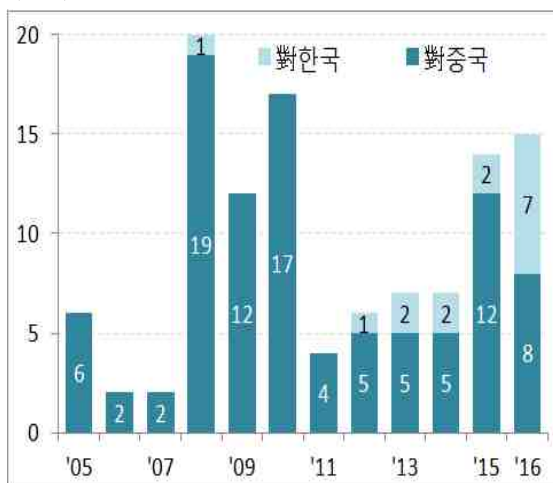
주 : 미국의 對中 총수입 대비 비중임.

③ 미국의 對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는 최근 2년간 재차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중국산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 대상임

-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는 주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조치건수도 증가 추세임
 - 2005~2016년 미국의 규제중인 조치건수를 볼 때, 중국에 대해서는 총 97건, 한국에 대해서는 총 15건의 규제를 실시
 - 중국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는 2008~201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가 최근 2년간 다시 증가
 -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규제조치의 주요 대상품목은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인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이후 누적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12건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를 취해 왔음
 - 동 기준, 중국에 대해서는 철강제품 36건, 화학제품 18건, 고무플라스틱 7건의 규제조치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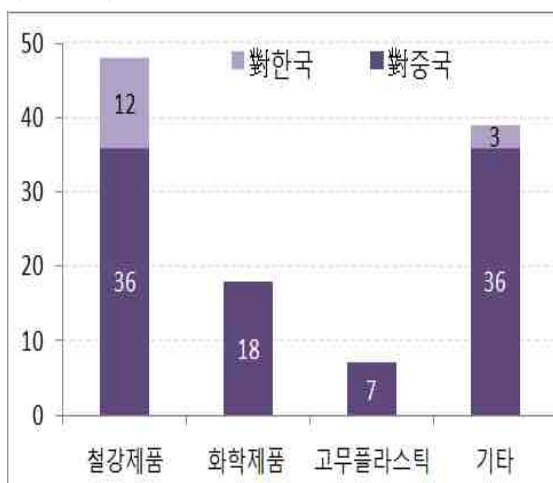
< 미국의 對 한·중 연도별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건수 (규제 중) > (건수)



자료 : US ITC.

- 주 1) 최초판정일 기준으로 규제중인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건수.
- 2) 2016년은 10월 31일까지 기준임.

< 미국의 對 한·중 산업별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건수 (규제 중) > (누적건수)



자료 : US ITC.

- 주 1) 최초판정일 기준으로 규제중인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건수.
- 2) 2005년~2016년 10월까지 누적기준임.
- 3) 기타 품목은 자철광석, 타이어, 가구 등.

3.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가정) 미국 관세율 인상은 중국의 수출 단가를 높이는 효과와 같고,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관세율 변화 따라 추가적인 단가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
- (추정 방법) 2000~2015년 기간 중국의 품목별 對美 수출 물량 및 단가, 연도별 더미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Panel Analysis)을 통해 중국의 對美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효과를 추정
- (결과) 미국의 對中 수입관세가 45%까지 증가하면 중국의 對美 수출액은 약 1,490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對美 수출 단가가 1%p 인상되었을 때 수출물량은 0.93% 감소
 - 미국의 對中 평균 수입 관세율이 3% 수준에서 15%, 30%, 45% 수준으로 상승했을 경우를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분석
 - 미국의 수입관세가 45%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중국의 對美 수출물량은 39.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총수출 손실액은 1,4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對美 총수출 손실액 추정 >

관세부과 시나리오	중국의 對美 총수출 손실액	중국의 對美 총수출액 감소 비율
15%	427억 달러	11.2%
30%	956억 달러	25.1%
45%	1,490억 달러	39.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총수출 손실액은 중국의 수출 가격 조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음.

2) 2012~2015년 중국의 연평균 대미 총수출액을 바탕으로 손실액 추정.

4. 시사점

- 트럼프 정부의 對中 관세조치가 본격화 될 경우, 중국경제의 직·간접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첫째,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 할 필요성이 있다.

- 중국 제품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동일한 한국산 제품도 제소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對中 중간재 수출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 하므로,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꾀해야 함
- 또한, 미국 측의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동일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기업들과도 연대하여 대응책 등을 협의하고 마련해야 함

둘째, 우리나라는 對美 수출 우회경로인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 남미 등 신흥국가로 수출을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

- 미국의 對中 관세조치는 중국 현지에서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동남아, 남미 등 국가로 기업들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한국의 對中 수출을 점차 중간재 중심에서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를 모색해야 함과 동시에,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포스트 차이나를 꾀하는 전략 마련도 병행

셋째,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중 단기간 내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정책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 최근 중국공업·정보화부(中國工業和信息化部)에서는 2017년에 '중국제조 2025' 관련 제조업, IT 등 인프라 조건이 모범적인 도시 20~30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시범도시는 궁극적으로 노후 공업기지 선진화, 혁신형 도시 건설 등을 표방하기 때문에 지역 내 제조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해당 정책의 기회를 활용 가능

넷째,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RCEP,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도 편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서 주변국들과 FTA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는 기회를 모색
- 동시에 한·중 FTA와 한·ASEAN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국가 간 교통·통신망, 물류, 자원개발, 제조업생산 등이 필요
- 또한, 미국이 TPP 탈퇴를 공식화한 만큼, 우리나라는 RCEP, 한중일 FTA 등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기회요인을 발굴해야 함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용찬 선임연구위원 (2072-6274, junius73@hri.co.kr)
박용정 연구위원 (2072-6204, yongjung@hri.co.kr)